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김인숙*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교수

Tea-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ment for Personality Education of Juvenile Reformatory Students

In-S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Business Administration,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소년원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회적 개입을 통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소년원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B시 소재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14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원생들 10명을 연구대상의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소년원생 사회적 개입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10회기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전 평균 2.37(SD 0.33), 사후 평균 2.49(SD 0.3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Z=-5.874$, $P=.000$), 자기통제력은 사전 평균 2.06(SD 0.20), 사후 평균 2.16(SD 0.19)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Z=-4.743$, $P=.001$). 대인관계는 사전 평균 1.90(SD 0.32), 사후 평균 2.15(SD 0.2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5.892$, $P=.000$). 이상의 결과들은 본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년원생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향후 교정복지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소년원생, 사회적 개입,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ersonality education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o effectively improv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social adaptation.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hrough social intervention,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fficacy, self-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juvenile detention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en juvenile detention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7 who were accommodated to a juvenile detention center in B city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e study.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10 times as a social intervention personality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as a result,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re-mean of 2.37 (SD 0.33) and a post-mean of 2.49 (SD 0.31),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Z=-5.874$, $P=.000$), self-contro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pre-mean 2.06 (SD 0.20) and the post-mean of 2.16 (SD 0.19) ($Z=-4.743$, $P=.00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 pre-mean of 1.90 (SD 0.32) and a post-mean of 2.15 (SD 0.21) ($Z=-5.892$, $P=.000$).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is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fficacy, self-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juvenile detention students. Therefore,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for personality education for juveniles can be used as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various types of adolescents as well as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welfare in the future.

Key Words : Juvenile detention, Social intervention, Personality education, Tea culture therapy program

*위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5170)

*교신저자 : 김인숙(s3260@hanmail.net)

접수일 2021년 11월 17일 수정일 2021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3일

1. 서론

인성교육이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인간다운 품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 또는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성숙시키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1]. 발달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행성이 보다 심화된 소년원의 소년원생은 개인적으로 내면의 힘들을 정화하고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서 사회적응기술을 획득해야하므로, 생애주기에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소년보호 교육기관인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으로 생활예절, 성교육, 법교육 등의 집단지도, 감수성 훈련, 강·절도 및 성비행 예방의 집단상담, 미술, 음악, 원예, 심리 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2,3].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단기간으로, 분야 별 단면적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년원에서 인성교육은 교정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통합형 및 한국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필요하다[4].

차문화는 차를 매개로 하여 생활 속에 구현되는 정신문화로서 차를 마시는 가운데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풍류와 정신 수련을 닦아 인간의 삶의 도리를 추구하는 덕을 쌓는 행위로 오랜 역사를 거쳐 이어져 왔다[5]. 이러한 차문화를 기반한 차문화치료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차를 마실 때 행하는 차 다루는 일과 관련된 제반 동작, 즉 행다를 통한 신체기능 회복 효과로서의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적응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사회적 기능, 외로움과 고독 극복 및 정서 안정을 위한 비공식적 지지체계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서적 기능, 그 외에도 인간내면의 성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인 교육적 기능 등으로 통합형 인성교육의 특성을 가진다[6,7].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적 사회적 개입의 통합형 인성교육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한국 문화의 전통적 정신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의 향상을 통해 인성함양을 추구하는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생 인성교육에 새로운 관점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원에서의 인성교육은 인성의 개념을 '성질(심리성)'과 '품격(사회성)'으

로 정의하고, 먼저 시행된 소년원생 심리적 개입 인성교육으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스트레스, 공격성, 분노조절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8]. 또한, 소년원생들에게 고요하고 정제된 차문화치료의 지속적인 체험들은 자아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기통제와 예의범절을 체득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기술을 획득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으므로 사회의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적 개입으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여,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하여, 소년원생이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 하고 건전한 인성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재비행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의 1차 년도에 소년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따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방향과 2차 년도의 소년원생의 심리적 개입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근거로 하여[3,7], 3차 년도의 소년원생의 사회적 개입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B시의 소년원에 협조를 요청 한 후, 소년원생과 비행청소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였다. 소년원생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문화적 소외와 예절 교육에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 한복을 수용하고 한복입기를 좋아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소년원에서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어서, 한복을 입고 생활예절과 차예절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참나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 얼굴의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수용시설에서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는 소년원생들의 특성상 그들의 심성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해 1회기 시작에서부터 한복을 입고 프로그램을 실행 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대상자인 소년원생들이 즐겁고 직접적으로 따라 하기 쉬운 차문화치료 체험으로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1회기는 한복입기와 프로그램 소개, 2회기는 차와 차예절, 3회기는 차의 장점체험으

로 스트레스 감소, 4회기에는 참나다례를 통한 소중한 나 자신과 만남, 5회기에는 빈칫상을 통해 힘들었던 일을 표출하기, 6회기에는 가계도를 통해 불편한 가족관계의 분노를 표출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7회기에는 가족다례를 통한 가족을 수용하고 소통하기, 8회기에는 접빈다례로 친구관계를 개선하기, 9회기는 일상 생활 예절과 대인관계 예절 습득하기, 10회기는 마무리로 참가자와 진행자, 소년원 선생님들이 다함께 절을 하고, 그동안 소년원생들이 학습한 참나다례를 시연하고, 차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감점을 적어주고, 전체 프로그램의 소감 나누며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도입 10분, 개입전개 활동 40분, 소감나누기와 정리 10분으로 회기 당 총 60분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의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B시의 소년원생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소년원의 협조로 선정된 10명의 소년원생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뒤 참여시켰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년원생들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가진 10명의 통제집단을 선정하였다. 연구윤리에 의거하여 선정된 20명의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등록번호:10045514)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소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2021-08-31-H-E-206587), T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통보 받은 후(TUIRB-2021-013)에 선정된 20명의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

한 후에, 동의서에 서약을 하고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인 실험집단 10명의 근거는 집단역동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져 오기에 적당한 인원수로 일반적으로 성인집단의 경우 8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수의 성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나 집단의 규모는 10명 정도가 적절하며, 이를 통해 결석과 집단에서의 탈락이 주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9]. 또한 법무부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참가인원으로 10명 정도이다.

실험집단 소년원생들의 개인 정보보호 차원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별의 경우 10명 전원 여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14세가 4명, 15세가 4명, 16세가 1명, 17세가 1명이었다. 통제집단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0명 전원의 성별이 여자였으며, 연령은 실험집단과 비슷한 14세가 4명, 15세가 4명, 16세가 1명, 17세가 1명이었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소년원생들의 재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적응 향상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회적 개입을 통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소년원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10]에서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5점 Likert 식 척도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Table 1> Subdomains, Items, and Reliability of Self-Efficacy Scale

subregion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In general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89
social self-efficacy	18*, 19, 20*, 21, 22*, 23	6	.64
all		23	.86

* reverse question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이다. 각 문항마다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1]에서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수 및 내적신뢰도는 아래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측정을 위하여 [12]에서 사용한 자기통제 척도와 김현숙의 자기통제평정 척도를 참고로 [14]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충동적이고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

렇다(5점)' 이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년원생들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사고한 후 행동하며 인내하는 능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통제력 척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검사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15]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16]에서 변안한 인간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관계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응답은 '대단히 불만족하는 편이다(1점)', '다소 불만족하는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4점)', '대단히 만족하는 편이다(5점)' 이다. 각 문항마다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2이다. 분석을 위해 조사된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적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Subdomains, Items, and Reliability of Self-Control Scale

subregion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The degree to which long-term satisfaction is sought	1, 2, 4, 8, 10, 11, 12, 13, 15, 20	10	.69
Degree of seeking immediate gratification	3*, 5*, 6*, 7*, 9*, 14*, 16*, 17*, 18*, 19*	10	.76
all		20	.75

* reverse question

<Table 3> Subdomains, Items, and Reli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Scale

subregion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satisfaction	1, 2, 3, 4	4	.69
Communication	9, 14, 18, 19	4	.75
trust	15, 23, 24	3	.75
Friendliness	5, 11, 16	3	.68
sensitivity	6, 10	2	.63
openness	12, 17, 20, 21, 22	5	.72
understanding	7, 8, 13, 25	4	.73
all		25	.92

4. 연구 결과

4.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회적 특성 변수들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B시의 소년원생 1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년 등에서 실험집단과 최대한 유사한 배경을 가진 10명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사회적 특성 변수들에 대한 맨 위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회적 특성 변수들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을 하위 요인별 결과로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2.38(SD 0.34), 통제집단이 평균 2.36(SD 0.32)이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2.37(SD 0.56), 통제집단이 평균 2.35(SD 0.4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2.37(SD 0.33), 통제집단이 평균 2.35(SD 0.28)로 나타나 전체 평균과 각 하위 요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효능감 변수에서 동질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을 하위 요인별 결과로 살펴보면,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실험집단이 평균 1.86(SD 0.27), 통제집단이 평균 1.91(SD 0.24)이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실험집단이 평균 3.74(SD 0.19), 통제집단이 평균 3.69(SD 0.13)로 나타났으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은 역문항이므로 자기통제력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 역문항하여 계산하였다. 자기통제력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2.06(SD 0.20), 통제집단이 평균 2.11(SD 0.17)이었다. 전체 평균과 각 하위 요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통제력 변수에서 동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경우, 만족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1.65(SD 0.13), 통제집단이 평균 1.63(SD 0.21)이었으며, 의사소통은 실험집단이 평균 2.25(SD 0.37), 통제집단이 평균 2.23(SD 0.40)으로 나타났다. 신뢰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1.60(SD 0.52), 통제집단이 평균 1.63(SD 0.48)이었

<Table 4> Verification of the homogeneity of the social characteristic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vision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0)	Z	P
		M(SD)	M(SD)		
self-efficacy	general sense of self-efficacy	2.38(0.34)	2.36(0.32)	.119	.907
	social self-efficacy	2.37(0.56)	2.35(0.46)	.073	.943
total self-efficacy		2.37(0.33)	2.35(0.28)	.126	.901
self-control	The degree to which long-term satisfaction is sought	1.86(0.27)	1.91(0.24)	-.438	.667
	Degree of seeking immediate gratification	3.74(0.19)	3.69(0.13)	.690	.499
total self-control		2.06(0.20)	2.11(0.17)	-.613	.547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1.65(0.13)	1.63(0.21)	.318	.754
	Communication	2.25(0.37)	2.23(0.40)	.145	.886
	trust	1.60(0.52)	1.63(0.48)	-.149	.883
	Friendliness	1.73(0.34)	1.70(0.29)	.234	.818
	sensitivity	1.80(0.42)	1.90(0.39)	-.548	.591
	openness	1.84(0.41)	1.80(0.35)	.234	.817
	understanding	2.40(0.36)	2.38(0.36)	.156	.878
al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90(0.32)	1.89(0.28)	.016	.987

*p<.05 **p<.01 ***p<.001

으며, 친근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1.73(SD 0.34), 통제집단이 평균 1.70(SD 0.29)로 나타났다. 민감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1.80(SD 0.42), 통제집단이 평균 1.90(SD 0.39)이었으며, 개방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1.84(SD 0.41), 통제집단이 평균 1.80(SD 0.35)이었고, 이해성은 실험집단이 평균 2.40(SD 0.36), 통제집단이 평균 2.38(SD 0.36)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1.90(SD 0.32), 통제집단이 평균 1.89(SD 0.28)였고, 전체 평균과 각 하위 요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변수에 있어서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특성 점수의 사전·사후 비교

사회적 개입을 통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서열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워 모수적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이다.

①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참여 전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점수 평균은 2.37(SD 0.33)이었고, 프로그램 참여 후 자기효능감 점

수 평균은 2.49(SD 0.31)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5.874^{***}$, $P=.000$). 즉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 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38(SD 0.34)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45(SD 0.32)로 0.07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811^{**}$, $P=.001$).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증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37(SD 0.56)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53(SD 0.50)으로 0.16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873^{**}$, $P=.004$).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② 자기통제력

프로그램 참여 전 실험집단의 자기통제력 점수 평균은 2.06(SD 0.20)이었고, 프로그램 참여 후 자기통제력 점

<Table 5> Comparison of pre and post self-efficac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vision			dictionary	posthumously	Z	P
			M(SD)	M(SD)		
Experiment group (n=10)	self-efficacy	In general self-efficacy	2.38(0.34)	2.45(0.32)	-4.811 ^{**}	.001
		social self-efficacy	2.37(0.56)	2.53(0.50)	-3.873 ^{**}	.004
	total self-efficacy		2.37(0.33)	2.49(0.31)	-5.874 ^{***}	.000
control group (n=10)	self-efficacy	In general self-efficacy	2.36(0.32)	2.37(0.31)	-1.000	.343
		social self-efficacy	2.35(0.46)	2.33(0.44)	-.361	.726
	total self-efficacy		2.35(0.28)	2.35(0.29)	-.231	.823

* $p<.05$ ** $p<.01$ *** $p<.001$

수 평균은 2.16(SD 0.19)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므로 확인되었다($Z=-4.743^{***}$, $P=.001$).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 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86(SD 0.27)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94(SD 0.26)로 0.08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6.000^{***}$, $P=.000$).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3.74(SD 0.19)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62(SD 0.18)로 0.12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674^{**}$, $P=.005$).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은 역문항들이므로 전체 자기통제력 평균을 구할 때는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통제력 점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통제력 점수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③ 대인관계

프로그램 참여 전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점수 평균은 1.90(SD 0.32)이었고, 프로그램 참여 후 대인관계 점수 평균은 2.15(SD 0.21)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대인관계 점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므로 확인되었다($Z=-5.892^{***}$, $P=.000$). 즉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대인관계 수준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 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만족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65(SD 0.13)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8(SD 0.13)로 0.23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250^*$, $P=.010$).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만족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증대되었다.

의사소통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25(SD 0.37)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38(SD 0.32)로 0.13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000^*$, $P=.015$).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수준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60(SD 0.52)이었

<Table 6> Comparison of pre and post self-control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ivision			dictionary	posthumously	Z	P
			M(SD)	M(SD)		
Experiment group (n=10)	self-control	The degree to which long-term satisfaction is sought	1.86(0.27)	1.94(0.26)	-6.000 ^{***}	.000
		Degree of seeking immediate gratification	3.74(0.19)	3.62(0.18)	3.674 ^{**}	.005
	total self-control		2.06(0.20)	2.16(0.19)	-4.743 ^{**}	.001
control group (n=10)	self-control	The degree to which long-term satisfaction is sought	1.91(0.24)	1.93(0.22)	-.802	.443
		Degree of seeking immediate gratification	3.69(0.13)	3.67(0.12)	1.500	.168
	total self-control		2.11(0.17)	2.13(0.15)	-1.809	.104

* $p<.05$ ** $p<.01$ *** $p<.001$

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균 1.97(SD 0.29)로 0.37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973^{**}$, $P=.003$).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신뢰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증대되었다.

친근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73(SD 0.34)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균 2.03(SD 0.40)으로 0.3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862^*$, $P=.019$).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친근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80(SD 0.42)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균 2.15(SD 0.47)로 0.35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583^{**}$, $P=.001$).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민감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84(SD 0.41)였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균 2.04(SD 0.30)로 0.2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354^{**}$, $P=.008$).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개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향상되었다.

이해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40(SD 0.36)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균 2.63(SD 0.27)으로 0.23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857^{**}$, $P=.004$).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이해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증대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사회적 개입을 통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의 대인관계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수준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척도 점수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pre and pos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vision			dictionary	posthumously	Z	P
			M(SD)	M(SD)		
Experiment group (n=10)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1.65(0.13)	1.88(0.13)	-3.250*	.010
		Communication	2.25(0.37)	2.38(0.32)	-3.000*	.015
		trust	1.60(0.52)	1.97(0.29)	-3.973**	.003
		Friendliness	1.73(0.34)	2.03(0.40)	-2.862*	.019
		sensitivity	1.80(0.42)	2.15(0.47)	-4.583**	.001
		openness	1.84(0.41)	2.04(0.30)	-3.354**	.008
		understanding	2.40(0.36)	2.63(0.27)	-3.857**	.004
	al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90(0.32)	2.15(0.21)	-5.892***	.000	
control group (n=10)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1.63(0.21)	1.60(0.24)	.361	.726
		Communication	2.23(0.40)	2.25(0.35)	-.429	.678
		trust	1.63(0.48)	1.67(0.44)	-1.000	.343
		Friendliness	1.70(0.29)	1.67(0.22)	.557	.591
		sensitivity	1.90(0.39)	2.05(0.44)	-1.406	.193
		openness	1.80(0.35)	1.86(0.35)	-1.152	.279
		understanding	2.38(0.36)	2.30(0.37)	1.964	.081
	al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89(0.28)	1.91(0.26)	-.686	.510	

* $p<.05$ ** $p<.01$ *** $p<.001$

5. 결론

소년원생들은 가족구조 약화, 물질중심의 가치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팽배 등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 부적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에서 소년원생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소년원생의 개인적으로 내면의 힘들을 강화하고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서 사회적응기술을 획득해야 한다. 소년원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도와 비행의 길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우리 차문화를 바탕으로 심신영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심리적으로 심성순화와 자연스럽게 자기통제와 예의범절을 체득하며, 사회의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자아효능감과 이원만한 대인관계를 향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으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소년원생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성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나아가 사회의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비행 예방을 하고자 한다. 개발된 소년원생의 사회적 개입으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B시의 소년원에서 소년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되었다. 사회적 개입을 통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소년원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검증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점수는 2.37(SD 0.33)이었고, 사후점수는 2.49(SD 0.31)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5.874^{***}$, $P=.000$). 자기통제력 검증결과 사전 2.06(SD 0.20)이었고, 사후 2.16(SD 0.19)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4.743^{**}$, $P=.001$). 대인관계의 검증결과 사전 1.90(SD 0.32)이었고, 사후 2.15(SD 0.21)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대인관계 점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5.892^{***}$, $P=.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년원생의 사회적 개입으로 인성교육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적 서비스 사회복지와 심도있는 소년원생 프

로그램의 특성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실행된 것으로 향후 연구 결과의 반영에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인 소년원생의 경우 수용시설인 소년원에 오기 전과 들어와 안에서 생활 할 때 일상 환경의 소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소년원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고급 정신문화를 바탕으로하는 차문화치료적 환경에서, 수용복대신 한복을 입고 즐겁고 쉽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받으면서 심성이 순화되어 굳었던 얼굴이 밝아지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문화적 소외와 사회와 일상생활 예절 교육에 기회가 적은 소년원생들에게 한국 차문화와 예절을 근거로 하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했을 때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수용하여 실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통제력이 향상되었다.

본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적 개입과 사회적 개입의 통합적 접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연구방법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긍정적인 차문화치료 환경에 기반하여 좋은 경험 차문화 체험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인정과 사랑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그들의 비행에 원인이 되었던 가족, 친구, 힘든 일의 미해결 감정을 표출하게하고 참나다례를 통한 자신과 참나담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절을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으로 반복 내면화함으로써, 향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기의 소년원생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심미적, 지적, 사회적 활동 및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소년원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한국 차문화의 근거이론한 전통 문화체험과 자연과의 교감 및 심미적, 지적, 예절,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활문화의 확장까지 섬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소년원생들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에 대한 체험의 자긍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활문화 예절을 습득하는 가운데 소년원생에게 심리적 개입으로 심성순화와 사회적 개입으로 인성함양을 도모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토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일반 청소년에게도 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D.W.Kim, "Humaniza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Education Science Bachelor. 1994.
- [2] M.J.Lee, "Operational Status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Improvement Plan",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2016.
- [3] I.S.Kim, "Development direction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ersonality educa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45: 31-58, 2019.
- [4] B.C.Lee and G.H.Cho,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Corrective Education" KCI Accredited Journal. 10(2), 63-87, 2018.
- [5] I.S.Kim, "Effects of Generation Integrated Tea Culture Therapy Program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Tea Society, Vol.23, No.2, pp.13-20, 2017.
- [6] I.S.Kim, "Understanding the General Condition of Juvenile Delinquent Charact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Promotion and Management 6(2): 19-24, 2019.
- [7] I.S.Kim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Psychological Intervention: A Tea Cultural Therapy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Korean Tea Association, 11(08): 345-353, 2021.
- [8] I.S.Kim, "A Tea Cultural Therapy Program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 Personality Educ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Korean Tea Association, 26(4):20-32, 2021.
- [9] Y.H.Lee, "Skill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GongDongChe, 2014.
- [10] S.M.,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1982.
- [11] H.Y.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5.
- [12] Gottfredson, M. R., & Hirschi,T,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13] H.S.Kim,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the influence factors of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delinqu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1998.
- [14] H.M.Nam, "The effect of family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adolescents' self-control and friend characteristics on problem behavi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1.
- [15] Schlein, A., & Guerne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 [16] S.M.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human relations train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s, 19, 195-204, 1980.

김 인 숙(In-Sook Kim)

[종신회원]



- 2003년 2월 ~ 2015년 2월 : 부산 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평생교육, 융합프로그램